

<하기 글은 2016년 7월 18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하게 부는 바람만큼 반가운 것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역시 지역사회와 기업을 잇는 창구로서 시원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7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뜨거운 열기가 돋보이던 그 날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성공적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장,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지난 13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7월 정기회의는 주요 민원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집중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작년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용인시 복지시설에 11대의 특수차량을 기증했는데요. 위원들은 다가오는 9월 24일에 진행될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가 지속해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나눔장터 △임직원 테마 봉사활동 △문화예술 객석 나눔 활동 위시존(Wish Zone) 소개와 하반기에 진행할 △2016년 사랑나눔 여름 김장축제 △2016 삼성드림러쉬 등의 행사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은 『제2회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배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진행된 제1회 게이트볼 대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만큼, 올해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는 더욱 재미있고 알찬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련링크: 이웃과 하나되는 화합의 장, 제1회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배 게이트볼 대회**

각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는 자유토론을 마지막으로 회의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오광환 주민대표로부터 7월 정기회의를 마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 오광환 주민대표 /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2016년의 하반기입니다.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1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는데요. 먼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삼성전자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며, 지역주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상반기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상반기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소통을 위해 노력할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